

육아가구에서 자녀의 의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요구

| 김지현

1. 배경과 문제제기
2.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인식
3. 부모가 된 후의 삶의 변화
4.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요구
5. 정책제언

참고문헌



육아가구에서 자녀의 의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요구¹⁾

김지현 연구위원

SUMMARY

- 2023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으로 11년 전인 2012년의 48만 5천명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육아하는 가구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양육자 관점에서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들여다보고자 함.
- 실제 육아가구의 부모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 자녀의 가치를 크게 느끼고 있고, 비육아가구의 경우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 육아의 긍정성 측면과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으로 육아가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육아친화적 문화 형성 및 육아지원제도 활용이 용이한 직장문화 제공 등의 노력으로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1) 본고는 2024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연구제인 김지현·권미경·김문정(2024)의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내용을 포함함. 아울러 본고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1 배경과 문제제기

가. 육아하는 가구의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 한국의 출생아수는 점차 줄어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음.

- 2023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으로 11년 전인 2012년의 48만 5천명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합계출산율 0.72명(통계청 보도자료, 2024. 2. 28.)으로 지속적 감세를 보이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 6. 19.).

▶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현상은 이와 같은 저출생 추세에 육아하는 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김지현 외, 2024)에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무자녀 응답자 중 출산 의향이 없거나 출산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임신, 출산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의 응답이 가장 높아, 결혼 전 육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음.
- 2016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자녀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 및 준비 부족’과 ‘부부간에 보다 많은 여가 향유’가 높게 나타나, 자녀가 있는 삶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여가 부족 등의 이미지가 있음을 알 수 있음(문무경 외, 2016).

나. 육아가구의 부모됨 및 삶의 질 등 양육자 관점의 분석 부족

▶ 육아를 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육아를 하는 양육자의 다양한 영역의 삶의 질을 분석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였음.

- 지금까지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 활용, 기관 및 개인 돌봄을 통한 돌봄지원, 그 외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양육자의 삶의 질 관점에서의 분석이 부족하였음.
- 양육자의 삶의 질 영역을 분석하고 측정하여, 영향력 있는 영역을 탐색하고, 비육아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저출생 추세에 부모됨에 대한 의미와 자녀에 대한 가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음.

-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현재의 청년들이 많은 가치관의 변화를 거쳐 왔듯이, 육아를 하는 부모로서의 가치관, 자녀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등 가치관에도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또한, 육아를 하는 가구와 육아를 하지 않는 가구의 부모됨 및 자녀에 대한 가치 인식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있음.

2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인식

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

1,614명의 육아가구(연령별 할당) 양육자와 410명의 기혼무자녀 남녀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하였음.

- ‘부모가 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행복을 준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다’의 문항은 4점 척도 중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의 문항에서는 4점 척도 중 2점 초반대로 낮은 점수를 나타냄.
- 성별과 자녀 유무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비육아가구보다는 육아가구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높게 나타남.

[표 1] 자녀에 대한 가치관

단위: 점, (명)

구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사례수
전체	3.3	3.3	3.1	3.1	2.2	2.3	(2,024)
성별							
남성	3.4	3.3	3.2	3.2	2.3	2.4	(1,011)
여성	3.3	3.3	3.0	3.0	2.0	2.1	(1,013)
<i>t</i>	3.4**	1.8	4.6***	5.3***	7.5***	9.5***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3.4	3.4	3.1	3.2	2.2	2.3	(1,614)
비육아가구	3.2	3.1	3.0	2.8	2.1	2.0	(410)
<i>t</i>	5.8***	7.3***	3.5**	9.0***	1.8	6.7***	

주: 1) ①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②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③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④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 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⑥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부모됨에 대한 인식

▶ 다음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정서적 준비가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의 세 질문으로 부모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음.

- 성별과 자녀 유무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부모로서의 책임감, 심리·정서적 준비, 경제적 준비에 있어 여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비육아가구 응답자가 육아가구 응답자보다 책임감, 심리·정서적, 경제적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말한 정도가 높게 나타남.

[표 2] 부모됨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정서적 준비가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례수
전체	3.2	3.4	3.3	(2,024)
성별				
남성	3.0	3.2	3.2	(1,011)
여성	3.3	3.5	3.4	(1,013)
<i>t</i>	-8.4***	-10.8***	-7.2***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3.1	3.3	3.2	(1,614)
비육아가구	3.4	3.5	3.5	(410)
<i>t</i>	-6.9***	-4.9***	-7.3***	

주: '전혀 동의하지 않다' 1점 ~ '매우 동의한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01$.

▶ 다음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vs.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이 선택비율을 살펴봄.

- 성별과 자녀 유무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남성(61.0%)이 여성(46.2%)보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응답하였고, 비육아가구(67.8%)가 육아가구(41.0%)보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 26.8%p 차이로 높게 응답하여 가치관의 차이를 볼 수 있음.
- 육아가구 중에서도 자녀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첫째자녀 기준 영유아 양육 육아가구가 초등학교 양육 육아가구보다 자녀를 위해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더 높게 나타남.

[표 3] 부모책임 인식

단위: %, (명)

구분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계
전체	53.6	46.4	(2,024)
성별			
남성	61.0	39.0	(1,011)
여성	46.2	53.8	(1,013)
$\chi^2(df)$	44.742(1)***		
육아가구 여부			
육아가구	59.0	41.0	(1,614)
비육아가구	32.2	67.8	(410)
$\chi^2(df)$	94.780(1)***		
첫째자녀 연령			
영아	52.5	47.5	(402)
유아	59.1	40.9	(406)
초등학교 저학년	64.2	35.8	(402)
초등학교 고학년	60.4	39.6	(404)
$\chi^2(df)$	11.836(3)**		

* $p < .05$, ** $p < .01$, *** $p < .001$.

3 부모가 된 후의 삶의 변화

가. 부모가 된다는 것

- ▶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부모 총 38명²⁾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자녀 연령대의 어머니, 아버지가 느끼는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음.

2) 심층면담에 참여한 연령별 부모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음.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전체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5	5	4	4	5	5	5	5	38

[표 4] 부모가 된다는 것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어머니	성숙해질 기회	책임감(3)	나를 희생해서까지	내 삶이 힌 단계
	선택받은 일	육아로 인해 성숙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성장하는 것
	누군가를 온전히	어른이 되는 과정	뒷받침해주는 존재	(배려, 타협, 인내 등)
	책임진다는 것		책임감이나 희생	어른이 되어가는 힘든 삶
	이해심이 넓어지는 것		책임감-내가 부여받은 일	희생과 책임감/ 이해폭이 넓어지는 성장
아버지	어른이 된다는 것	성장한 느낌	항상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가족관계를 더 다질 수	어른이 된 것 같음	책임을 지는 일	있는 기회
	있는 기회			
	분위기가 화목해짐			

주: 괄호속의 숫자는 동일한 대답을 한 면담자 수임.

먼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 성숙/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알게 됨.

-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바르게 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과정임.

저는 육아를 해서, 육아로 인해 제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제가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아이를 안 낳았으면 제가 철들지 않았을 것 같다. (유아 모2)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남으로써 조금, 전에는 저만을 위해 생각했던 것들을 약간 포기도 하고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의 대립 관계가 생겼을 때도 전에 같았으면 나를 위해서 주장하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한 바퀴 돌아서서 우리 아이 때문에 이런 건 내가 또 참아야 될 부분도 있겠구나. (초고 모4)

- 부모가 됨으로써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는 느낌을 받음.

저도 다른 분들 말하신 거랑 공감하는 게, 저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결혼을 일찍 한 편이긴 한데, 개네들보다 제가 살짝 더 어른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유아 부1)

부모가 됐다는 거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동안 철없이 맨날 지내오다가 아이가 생겨서 제가 또 부모가 되니까,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제는 슬슬 이해가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영아 부1)

▶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존재를 얻는 동시에 무궁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일임을 느낀다고 하였음.

-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생명체를 책임지게 되는 중요한 일이며 그 임무가 주어졌다는 생각에 희생이 따르기도 하지만 부모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됨.

부모가 된다는 게, 이걸 진짜 한 존재라는 거를 내가... 그러니까 성인까지면 다행이고 어떻게 아이가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애를 책임져줘야 되고...(중략)...끝까지 계속 가슴에 품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너무 엄청난 책임감을 요하는 거구나, 부모가 된다는 게 정말 내가 오롯이 책임져야 될 존재가 하나가 생긴다는 거구나. (영아 모5)

책임져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중략)... 어쨌든 20살 넘어서 책임을 지고 독립까지 시키는 게 육아의 끝이니까, 잘 독립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일 것 같아요. (유아 모1)

-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선택받은 일이며,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얻게 되는 중요한 기회이며 삶이 풍요로워 지는 일임.

아이가 생김으로써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거? 무한히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영아 부5)

진짜 선택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걸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 엄마가 된다는 게 진짜 굉장하, 진짜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아 모2)

나. 자녀의 의미

▶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부모 대상으로 자녀의 의미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자녀 연령별, 부모별 의견을 살펴보았음.

[표 5] 자녀의 의미 표현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어머니	찰싹떡	살아 있는 CCTV.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선물	나와는 다른 사람
	매미	거울.	삶의 원동력-내가	선물
	공기 같은 존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살아가야 하는 이유	감사함-기특하고
	나를 비춰주는 거울	소중한 존재	선물/분신	벅차오름이 있는 감사한
분신	스펀지	보물 같은 존재	선물임과 동시에 흑-평생 함께하면서 관리해야하는 존재	존재 또 다른 나(2)
	나를 무한히 믿어주는 존재	삶의 전환점	양파	또 다른 나
아버지	에너지	거울	보석의 원석	나무
	지켜줘야 하는 존재		나의 또 다른 자아	물
	작은 자아		나를 비춰주는 거울	거울

주: 괄호속의 숫자는 동일한 대답을 한 면담자 수임.

- ▶ **조금씩의 표현의 차이는 있었지만 또 다른 나처럼 나의 모습을 너무 닮은, 나의 행동이 그대로 반영되는 인격체임을 느끼게 된다는 뜻으로 자녀란 분신 같은 존재이며, 또 다른 나, 살아있는 CCTV, 거울 등으로 자녀를 표현하였음.**

분신 같아요. 그냥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얼굴만 보고 있어도 그냥 저를 보는 것 같고 행동도 내가 저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냥 다 제 분신 같은 존재. (영아 모3)

자녀는 비유를 하자면 저는 또 다른 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된다는 건 어렵지만 그만큼 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고 부2)

자녀란, 또 다른 나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나. 애가 점점 저를 닮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독립시키고 애가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애를 보면 지금 또 다른 나인 것 같은 기분? (초고 모2)

근데 좋은 것만 배우면 좋는데 습득이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말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돼서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거울로 다 보는 것 같아요 (유아 모2)

- ▶ **자녀는 하늘에서 나에게 준 선물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나를 무한히 사랑해주는 보물 같은 존재임.**

저는 자녀를 비유하면, 자녀는 나무 같아요. 제가 잘 키우고 가꿔서 크게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가 태양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무가 작게도 클 수 있고 같은 나무라도,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무라 생각을 하고. (초고 부1)

아까 전 질문에서 저는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무한히 나를 의지하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영아 부5)

저도 아이한테 항상 많이 표현을 하는 스타일인데, 아이한테 너는 너무 소중하고 너는 보물보다 더 소중하고 엄마보다 더 소중하고 막 이런 말 많이 해 주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어느 엄마와 똑같이 저도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가 아프면 제가 대신 아프고 싶고 그런 걸 보면서 아이한테도 계속 말해줘요. 너는 너무 소중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유아 모3)

다. 자녀가 생긴 후 가장 행복한 순간

- ▶ **자녀가 생긴 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질문하여 그 응답들을 정리해보았음.**

[표 6] 자녀의 의미 표현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어머니	처음 모유수유 했을 때 쌍둥이라 둘이 잘 놀 때	내가 이쁠 때 밴드 붙여줄 때 엄마가 최고야 할 때(웃는 게 예뻐-) 점차 대화가 되고 나의	처음 엄마 했을 때(33개월) 쌍둥이라 작게 낳았지만 잘 크고 있는 자체가 행복	말하기 시작할 때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할 때 아이 어렸을 때 아이가 성장했다고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마음을 알아 줄 때 동생 예뻐해 줄 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입학식 때	느낄 때
아버지	아빠라는 말 들었을 때(2) 배말이 하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왔던 모습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날 필요로 해서 찾아올 때 2018.3.15.(아이생일) 아이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	아이가 성취를 이룰 때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매순간 행복함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때 하루하루가 행복

주: 괄호속의 숫자는 동일한 대답을 한 면담자 수임.

▶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처음 불렀을 때라고 하였음.**

그래도 아빠라는 단어 들었을 때. 진짜 내가 아빠 된 거구나 라는. 가장 그때가 너무... 소리는 안 들렸지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아 부1)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돌아올 때 저를 보고서는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아빠!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영아 부5)

저도 애가 5살 때인가 그때, 유치원에서 시킨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가, 진짜 내가 내 몸이 삭아가면서 낳고 키웠는데 이런 말 한마디에 행복해지는구나 이렇게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저 모2)

▶ **아이 존재 자체가 행복이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고 성장하는 하루하루가 행복이라고 하였음.**

아무래도 저희 애들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 교수님한테 일찍 낳고 싶다고, 혼났거든요. 근데 낳긴 했어야 됐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지금 잘 성장해 주고 있고, 아프지 않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초저 모5)

사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거의 다 동일하게 행복하긴 했는데, 아이가 저를 필요로 할 때. 웃음을 짓든지 무서워서 울든지, 어쨌든 안아달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를 필요로 해서 찾아올 때 행복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아 부3)

일단 행복했던 순간은 매 순간이에요. (초저 부4)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였으며, 초등이상의 부모들은 자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음.**

저는 초등학교 입학식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중고등학교도 남았고 대학교도 남았고 아이가 커가야 될, 지켜봐야 될 상황이 많지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친구들이랑 줄 서서 앉아 있고 교실에 혼자 들어가고 하는 모습이, 아 저만큼 많이 키웠다. 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만족감도 컸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초저 모3)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첫째 있고 둘째 태어나면서, 둘이 아기 때 첫째가 둘째한테 이유식 먹여준다고, 먹여주면서 앞에서 또 첫째 앞에서 막 장난치면서 웃기려고 하면서 둘이 웃고 껴안고 이랬을 때 봤었을 때가, 지금도 가끔 그 영상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언니가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둘째가 거기서 박수 치면서 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둘째는 첫째 1호 팬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때 너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귀엽고,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초고 모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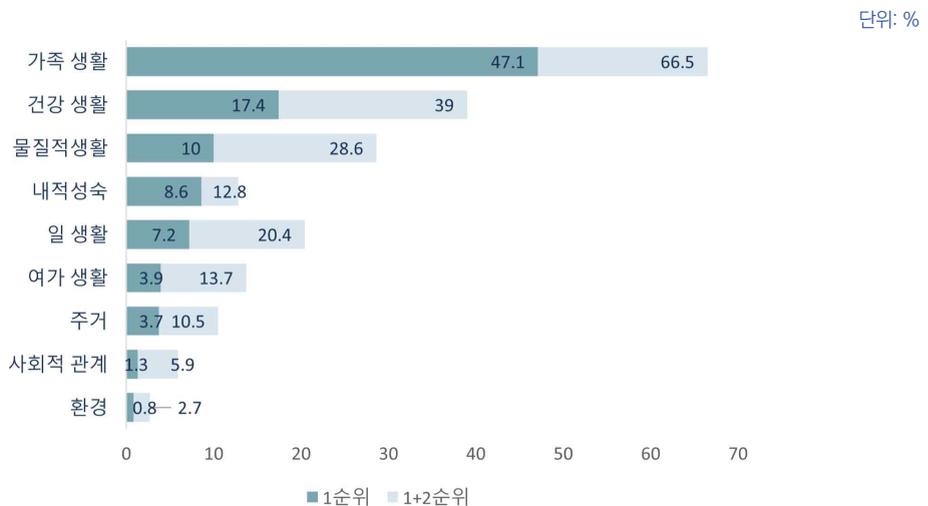
4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식과 정책적 요구

가. 육아가구의 삶의 질 영역에 대한 인식

▶ 육아가구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현재상황과 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어떤 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노력을 쏟고 있는지’, ‘어떤 영역을 향상시키고 싶은지’의 세 가지를 질문하였음.

- 먼저,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이라는 응답이 47.1%로 월등히 높았고, 다음은 ‘건강’ 17.4%, ‘소득’ 10%, ‘내적 성숙’ 8.6%, ‘일’ 7.2%, ‘여가’ 3.9%, ‘주거’ 3.7%, ‘사회적 관계’ 1.3%, ‘환경’ 0.8%의 순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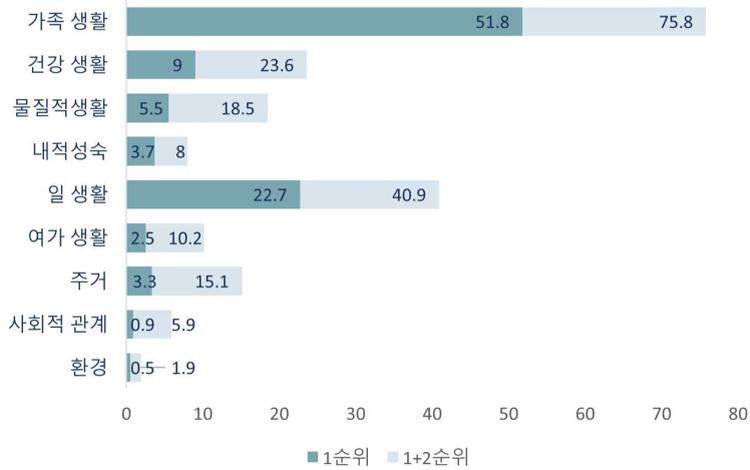
[그림 1]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 다음으로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영역’을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생활’이라는 응답이 51.8%로 월등히 높았고, 다음은 ‘일(직장)생활’ 22.7%, ‘건강생활’ 9% 등에 높은 응답을 보였음.

[그림 2]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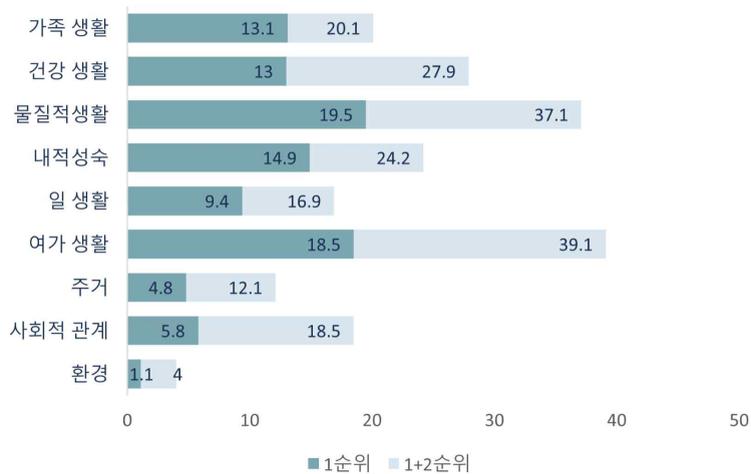
단위: %



-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현재 삶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물질적 생활(19.5%)’과 ‘여가(18.5%)’라는 응답이 높았고, 다음은 ‘내적 성숙’ 14.9%, ‘가족생활’ 13.1%, ‘건강생활’ 13%, ‘일(직장) 생활’ 9.4%, ‘사회적 관계’ 5.8% 등의 순서로 높은 응답을 보임.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보면, ‘여가’ 39.1%, ‘물질적 생활’ 37.1%, ‘건강생활’ 27.9%, ‘내적 성숙’ 24.2%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3] 삶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

단위: %



▶ [그림 4]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영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동시에 나타냈음.

- 육아가구의 50%에 가까운 비율이 삶에서 가족생활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동시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영역이기도 함.
- 하지만, 일 영역은 중요도에서는 높지 않지만 물질적 생활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간을 쏟고 있는 정도가 가족생활 다음으로 높아, 시간 사용은 가족생활과 일 생활에 치중되어 있음.
-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여가생활, 물질적 생활, 내적성숙 등의 영역이 높게 나타나, 중요도와 시간사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가생활을 더욱 향유하고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 삶의 질 영역에 대한 중요도/시간사용/개선필요 정도



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분야

▶ 전반적으로 비용, 시간, 돌봄, 주거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으며, 교육정책은 그 뒤를 따랐음.

- 1+2+3순위를 종합하여 보면, ‘비용 지원 정책(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등)’ 58.7%, ‘양육 시간 지원 정책(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55.8%, ‘돌봄 서비스 지원정책(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등)’ 47.8%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이는 2024년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마련’의 큰 줄기인 일·가정양립지원, 돌봄지원, 주거지원이라는 큰 틀과 같은 맥락임.

세부 집단에 따라 응답에 차이를 보이기도 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집단에서는 ‘비용 지원 정책’을, 여성 집단에서는 ‘양육 시간 지원 정책’을 더 선호함.
- 자녀 연령으로는, 영유아 가구에서는 시간지원,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고르게 높았고, 초등 저학년 집단에서는 양육친화문화에 대한 지원이 타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 고학년 집단에서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교육 정책에 대한 요구가 타집단 대비 높았음.
-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비용 지원 정책’에의 요구가 높으나, 6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양육 시간 지원 정책’을 더 요구함.
- 맞벌이 가구에서는 ‘양육 시간 지원 정책’을, 외벌이 가구에서는 ‘비용 지원 정책’을 더 높게 응답함.
-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비용지원, 시간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요구하는 경향성을 보임.

[표 기]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

단위: %, (명)

구분	① 시간 지원	② 비용 지원	③ 돌봄 지원	④ 주거 지원	⑤ 교육 정책	⑥ 지역 환경	⑦ 육아 친화 문화	⑧ 아동 의료 지원	⑨ 부모 상담	⑩ 기타	계
1+2+3순위 전체	55.8	58.7	47.8	34.6	28.0	14.5	27.8	21.5	10.5	0.4	-
1+2순위 전체	39.1	44.1	29.2	25.0	17.8	7.7	17.7	12.1	7.0	0.2	-
1순위 전체	20.1	26.1	11.5	13.4	8.0	2.7	9.1	5.1	3.8	0.2	(2,024)
성별											
남성	16.9	28.0	10.9	15.3	8.0	3.0	8.9	4.9	3.9	0.2	(1,011)
여성	23.3	24.3	12.1	11.5	7.9	2.5	9.3	5.2	3.7	0.2	(1,013)
$\chi^2(df)$					19.689(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5	30.5	11.1	14.1	6.9	2.3	8.0	7.3	5.0	0.4	(262)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16.1	28.4	11.1	14.6	6.5	3.4	9.6	5.6	4.4	0.4	(522)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9.3	30.9	11.4	12.7	8.3	2.6	7.0	3.5	4.2	0.0	(456)
600만원 이상 750만원 미만	28.1	21.7	9.0	12.2	8.4	3.2	8.1	6.4	2.6	0.3	(345)
750만원 이상	22.8	19.4	14.4	13.4	9.6	1.8	12.1	3.9	2.7	0.0	(439)
$\chi^2(df)$					72.647(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0	23.7	12.0	14.3	7.4	2.3	8.4	4.7	3.1	0.0	(1,306)
외벌이	13.3	30.2	10.6	11.4	9.4	3.4	10.2	6.0	4.7	0.7	(615)
그 외	10.7	33.0	10.7	14.6	6.8	3.9	10.7	3.9	5.8	0.0	(103)
$\chi^2(df)$					62.709(18)***						

구분	① 시간 지원	② 비용 지원	③ 돌봄 지원	④ 주거 지원	⑤ 교육 정책	⑥ 지역 환경	⑦ 육아 친화 문화	⑧ 아동 의료 지원	⑨ 부모 상담	⑩ 기타	계
첫째자녀 연령											
영아(만0-2세)	23.1	25.9	12.7	12.4	4.7	3.5	8.2	5.2	4.0	0.2	(402)
유아(만3-5세)	21.7	26.6	10.3	13.1	7.6	3.0	7.4	6.4	3.9	0.0	(406)
초등학교 저학년(만6-8세)	15.9	25.9	12.4	11.2	9.0	3.7	11.7	4.7	5.2	0.2	(402)
초등학교 고학년(만9-11세)	16.3	31.9	8.7	11.4	12.6	2.5	8.2	4.2	3.7	0.5	(404)
$\chi^2(df)$					43.933(27)*						
자녀수											
1명	20.8	25.0	12.6	11.6	7.7	3.5	9.0	4.8	4.8	0.2	(965)
2명 이상	16.9	31.4	8.6	12.6	9.7	2.6	8.6	5.7	3.4	0.3	(649)
$\chi^2(df)$					20.446(9)*						

주: ① 양육 시간 지원 정책(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② 비용 지원 정책(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등) ③ 돌봄 서비스 지원정책(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등) ④ 주거 지원 정책(특별공급, 청약 가점 등) ⑤ 교육 정책(공교육 강화 등) ⑥ 지역사회 환경(놀이터, 공원 등) ⑦ 양육 친화적인 문화(양육에의 가치 인정, 아동 환대 등의 분위기) ⑧ 아동 의료시설 확대 ⑨ 육아기 부모 대상 자녀 및 부모 상담 ⑩ 기타

* $p < .05$, ** $p < .01$, *** $p < .001$.

5 정책 제언

▶ 육아가구의 삶의 질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가구의 양육자가 자녀로 인한 행복감을 느끼며 스스로 성숙해가는 내적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음.

- 자녀 출산으로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원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 경험, 누군가를 책임져야하는 존재로서 성장해가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모습 등 내적 성장 경험, 가족관계 개선 경험을 하고 있었음.
- 상대적으로 비육아가구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막연한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육아가구에 대한 인식개선, 양육친화적 정책 등이 필요한 시점임.

가. 미디어에서의 육아에 대한 긍정성 노출을 통한 인식 확산

▶ 미디어를 통하여 드러나는 육아의 모습은 부정적이고 힘들기만 하게 비춰지고 있어 이로 인해 육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육아를 하고 있는 양육자도 육아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

- 미디어를 통해 육아의 긍정적 상황에 대한 지속적 노출과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등의 저출생 현상들이 가속되고 있어, 이에 미디어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확산이 필요함.

나. 육아가구 대상 문화·관광활동 지원

- ▶ 육아가구의 경험을 살펴보면, 자녀로 인한 관계로 관계 확장을 경험하고, 자녀를 위한 여행으로 자신의 경험을 확장해나가는 긍정적인 경험의 공유를 할 수 있었음.
 -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높고, 육아가구의 경우 여행 및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가 높아, 육아가구 대상 문화·관광활동을 확대하여 육아가구가 자녀와 함께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및 문화비 지원 등 다양한 경험지원이 필요함.
 -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시설 및 지역공공기관 문화시설의 활용에 있어서, 가족단위 방문 시 식당 및 숙박시설 할인, 지역문화행사에서도 가족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자녀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 또한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음.

다. 육아지원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업사회 문화 조성

- ▶ 출산과 양육을 양육자가 직접 돌보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이에 남성의 육아휴직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주변의 눈치로 인해 양육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육아가구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지원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임.
 - 일부 육아가구가 활용하는 육아지원정책 및 사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직원들로 인해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어려움 및 육아휴직자 대상 불이익 등의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기업 내 문화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를 통한 인식이 필요함.

3)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2023.1.25.). 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증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894> (인출일자 2024. 1. 8.)

참 고 문 헌

- 김지현·권미경·김문정(2024).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현·배윤진·김문정(2024).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2023.1.3.). 남성육아휴직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894> (인출일자 2024. 1. 14.)
 -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4. 6. 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통계청 보도자료(2024. 2. 28.)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

김지현 연구위원 jhkim@kicce.re.kr

2024 KICCE ISSUE PAPER

육아가구에서 자녀의 의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9층
www.kicce.re.kr